

건강 칼럼

반려동물 종양, 비장 떼어내도 사는데 지장 없을까?

반려동물 건강검진 중 초음파 검사에서 비장종양이 발견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종양이 매우 작고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다면 모니터링만 진행하지만, 크기가 크거나 파열이 의심되는 경우 수술을 권장한다. 과연 비장을 제거해도 괜찮을까?

비장은 몸에서 혈액을 저장, 생성하고 오래된 혈구를 걸러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장기다. 림프조직도 분포해 있어 감염이 있을 때 감염체를 제거하는 면역기관의 역할도 수행한다.

이러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비장을 제거한 동물은 문제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비장이 아닌 다른 장기에서 대신 수행하기 때문이다.

비장에 종양이 생겼을 때 임상 증상은 특이적이지 않다. 만약 혈액 관련 종양이면 빈혈이 발생할 수 있으며, 비장은 혈액을 다량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비장종괴가 파열된다면 반려동물이 쓰러지거나 급사할 수 있다. 또한 복부팽만, 체중감소, 식욕 및 기력 저하 등이 동반될 수 있다.



유창범

24시 사립안동물메디칼센터 원장

비장에 생기는 종양은 매우 다양하다. 혈관 및 혈액, 림프가 다량 분포하는 장기이기에 이와 관련한 종양이 많이 생긴다. 고령이든 나이가 어린 개에게 더 흔하게 발생하며, 양성골수 외 조혈이나 림프구종양이 결절이나 종괴처럼 보일 수 있으며, 양성 과 양성종양 모두 발생할 수 있다.

검사 시에 종양을 영상학적 소견만으로 완벽히 구분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조직검사와 제거가 치료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상황에 따라 세침흡인 검사를 진행하기도 하는데 비장은 혈관이 발달해 검사 후 복강 내 소량의 출혈이 동반되는 경

우가 있지만 심각한 상태로 발전하는 경우는 드물다.

또, 종양이 아니라 고혈압도 제거가 권장될 수 있다. 빈혈이나 혈소판감소증이 있을 때, 빈혈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다. 비장은 조혈하는 장기이므로 빈혈이 있는 반려동물을 검사하면 장기가 커지는 것을 흔히 관찰할 수 있다.

빈혈이나 혈소판감소증의 원인을 알 수 없거나 치료를 해도 재발할 때 절제를 고려할 수 있다. 비장에서 혈구를 과도하게 제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비장을 초음파로 지속 확인했을 때 변화가 보일 수도 있으나, 대부분 비장비대 외에는 유의미한 변화가 보이지

않을 때가 많다.

따라서 빈혈에 대한 원인감별 및 적절한 치료에도 차도가 보이지 않는 경우 혹은 빈혈의 원인이 감별되지 않는 경우 비장 절제를 권할 수 있다. 장기에서의 과도한 혈액 소실이 원인이 아니라면 수술 후에도 개선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나 수술 전 이를 감별하기는 다소 어렵다.

여러 이유로 비장을 제거한 이후 대부분의 동물이 큰 부작용 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종양은 임상증상이 뚜렷하지 않아 동물병원 건강검진 중 우연히 발견되는 때가 종종 있다. 이미 종양이 파열된 이후 진료를 받을 때도 있다.

파열된 종양이 악성이면 이후 복강 내 전이 가능성이 있어 예후가 좋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나이 든 반려동물을 키운다면 주기적인 복부초음파 검진을 추천한다.

평소 복부팽만이나 점막 창백, 기력저하, 식욕부진, 체중감소 등 이상증세가 확인된다면 검진을 통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사설

교육감직 인수위 백서

전북 교육감직 인수위 백서에 대해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4년 동안 추진할 교육 정책의 방향을 논의할 교육감직 인수위원회를 꾸렸다. 인수위 활동을 마무리하며 백서를 공개한 것이다.

교육감직 인수위원회는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당선된 이후 공약 이행을 위해 들쭉거리며 출범했다. 그러나 활동을 마무리하기까지 중간보고회를 제외하곤 이렇다 할 소통이 없었다.

백서는 전체 407페이지 가운데, 언론 보도와 교육감 일정, 연설문과 축사 모음 등에 3분의 1 정도인 120여 페이지가 할애됐다. 인수위 활동 일지도 1백 페이지가량을 차지했다.

공약 이행에 관한 내용은 절반에 못 미치는 1백80여 페이지에 불과했다. 4년 전 전임 교육감 출범위가 발간한 백서는 90퍼센트 이상이 교육 정책 관련이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이번 인수위가 사실상 홍보에 치중했

다는 지적이다. 인수위 제안에 구체성이 부족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담기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사실 많은 인원과 예산을 투입한 결과물로 보기에는 중간 발표회에서 보여줬던 내용보다 진전되거나 구체화된 내용이 없다.

인수위원회는 중간보고회를 연 지 나흘 만에 핵심 역할을 맡았던 3명의 위원이 교육청 주요 요직으로 자리를 옮겼다. 무책임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인수위 측은 백서에는 공약 이행 계획뿐만 아니라 공약 실행을 위한 교육감 활동 내용과 경과 등도 담았다고 말한다. 교육정책을 검토하고 그 내용을 기술했다는 것이다.

교육감직 인수위원회가 한 달여 동안 쓴 예산은 1억5천6백여만 원이다. 인수위 백서는 새 교육 정책의 나침반 역할을 해야 한다. 자화자찬 보고서로 전락할지 감시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군산 아메리칸 타운

전북 군산시 미성동 15동 일사 2마을은 '아메리칸 타운(A타운)' 혹은 '국제 문화마을'로 불린다. 이곳은 3km가량 떨어진 군산 미군기지 장병들의 유흥을 위해 1970년대 조성됐다.

A타운이 50여 년 만에 사라질 전망이다. A타운 부지 1만5천여㎡(약 5천 평)를 사들인 건설업체가 지역주택조합 형식으로 지하 3층·지상 48층짜리 대규모 아파트(940여 세대)를 지을 계획이기 때문이다.

고층 아파트 건립에 따른 인근 공군 제38전투비행전대의 비행안전에 대한 문제 등이 해소되지 않아 군산시의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다. 그러나 아파트 건립 소식에 주민과 업주들이 하나둘씩 떠나면서 A타운은 사실상 개점 휴업상태다.

현재 A타운에는 20여 개의 클럽이 붙어있다. 마을 입구에 '정상 영업을 한다'는 안내문이 붙어있지만, 실제 영업을 하는 곳은 10곳 정도다. 불교

기와 치킨 등을 파는 8~9개의 레스토랑도 거의 닫혀있다.

20년 전만 해도 주말이면 A타운은 불야성을 이뤘다. 당시 여성 종사자들이 수백 명에 달했다. 그러나 요즘에 미군은 거의 없다. 한국인이 호기심에 가끔 찾아와 술을 마시고 간다.

군산 미군 부대 장병들이 셔틀버스로 오산의 아메리칸 타운이나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면서 미군을 찾아보기 힘들다. 문을 여는 10곳의 클럽에는 여전히 우즈베키스탄 여성 40~50명이 종사하고 있다.

수년 전에는 필리핀 여성이 있었고, 수십 년 전에는 한국 여성들이 그 자리를 지켰다. 이곳은 송탄이나 동두천의 기지촌과 달리 기지촌 여성에 대한 통제가 엄격 심했다.

아은 역사와 애환이 깃든 현상이 변하고 있다. 군산 아메리칸 타운이 과거의 아픔을 딛고 군산의 새로운 터전이 되기 바란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다이애나 왕세자비 추모하는 꽃과 사진



8월 31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의 켈싱턴궁전 입구에 다이애나 왕세자비를 추모하는 사진과 꽃이 장식돼 있다. 31일은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프랑스 파리에서 파파라치를 피하다가 자동차 사고로 숨진 지 25주기 되는 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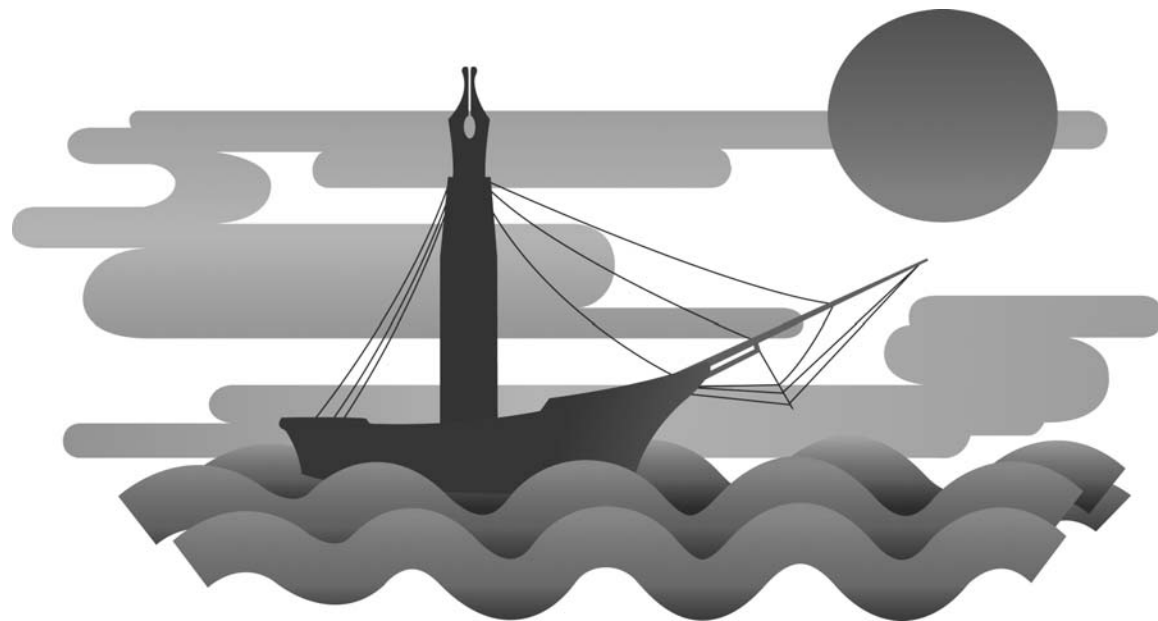
레드카펫 선 베니스 영화제 심사위원들



제79회 베니스 영화제 경쟁부문 심사위원장인 배우 줄리엔 무어(왼쪽 세 번째)가 8월 31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열린 베니스 영화제 개막식에서 다른 심사위원들과 포토티임을 갖고 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